

데스크 시국



박성친
여론매체부 부국장

정호승 시인의 '선암사'라는 시가 있다. "눈물이 아니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로 시작되는 시는 마치 산사에서 구전되어 온 노래처럼 정겹다. 언제 읽어도 그 시는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 흑역 선암사에 기본 적이 없는 이들도 그 시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싸해진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계상황에 몰려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영 이별을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 열심히 일해도 최저 생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이들에게 삶은 끝 같게 없이 펼쳐진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아득한 일일지 모른다.

50여 년 이어진 소유권 분쟁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이들에게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는 구절은 따뜻한 위로를 준다. 당장이라도 선암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천년 아름다운 고찰에 안겨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을

선암사의 삼무(三無)를 되새기며

짓누르는 답답함과 쓸쓸함이 씻겨 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선암사는 '속세'의 사람들을 품어 줄 여력이 없는 것 같다.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세웠다고 전해오는 유서 깊은 천년 고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과 한국불교대교종(대교종) 두 종단은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였다.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대교종 승려들이 점유하는 형태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초 철거 소송 1·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실질적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 실체가 없고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사찰 건물, 부지 관련 등기 소송에서도 대교종 선암사가 일부 승소했다. 등기 명의는 조계종 선암사 측에 있지만 소유권은 사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대교종 선암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였다.

선암사를 둘러싼 두 종단의 갈등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대저 측 승려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태고종은 선암사를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1971년 건물과 토지 등을 등기했다. 그러나 조계종 선암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선암사는 조계종 사찰'이라는 사실 증명원을 토

대로 1972년 9월 조계종 측 소유로 변경 등기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수십 년간 선암사는 등기상 소유와 실질적인 점유가 다른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 그러다 2014년 순천시 사찰 부지에 건립한 '정통차 체험관' 소유권을 둘러싸고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돼,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으로 확대됐다.

천년 고찰에 깃든 정신 퇴색 우려

사실 선암사를 아끼는 이들은 복잡한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른 봄 피어나는 눈부신 홍매와 백매, '신선이 하늘로 오른다'는 뜻의 승선교(昇仙橋), 8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 고즈넉한 사찰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은 너무도 아름답다.

설화에 따르면 선암사(仙巖寺)의 명칭은 크고 평평한 바위에서 유래했다. 조계산 서쪽의 바위에서 신선들이 바둑을 두었는데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던 모양이다. 10여 장(丈)이나 되는 돌에서의 신선놀음은 아마도 풍광에 취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선암사는 다른 절과 달리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사천왕문, 대웅전 협시보살상과 어간문(대웅전 중앙문)이 그것인데, 이를 삼무(三無)라 한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깨달음과 연관돼 있다. 그 깨달음은 결국 불교의 핵심인 무(無), 공(空) 사상으로 전이된다. 명산대찰의 스님들이 그 '없음'의 의미를 모를 리 없으면, 흑역 작금의 분쟁이 선암사에 깃든 정신을 가릴까 우려스럽다.

은편칼럼

문제는 외교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최근 이탈리아를 이끌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직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내각 수명이 1년 6개월이면 결코 짧은 편은 아니다. 1946년 이후 내각이 67번이나 바뀌어 이탈리아 정부의 평균 내각 수명이 1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렇다. 신기한 것은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함에도 이탈리아의 국가적 위상과 국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와는 달리 관료제가 안정적이고 국민적 수준이나 경제인의 저력이 탄탄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직업인 중에서 정치인만큼 큰 혐오의 대상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 온 나라가 최루탄으로 가득했어도 경제는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정을 소홀히 한 시기에도 선진 국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무능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 공식 기구에 의해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에 진입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밀바닥 지지도를 보여줄 만큼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라 사정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 관료와 기업인의 수준은 이미 이탈리아 수준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진짜로 걱정되는 분야가 있다. 외교 문제다.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했던 냉전체제 때와는 달리 미·중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신냉전체제에서 우리 외교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그런데도 외교 문제에 문외한인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 및 대미·대중 관계에 너무 용감하게 그리고 단순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선제 타격론 등 자극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미·중 관계에서는 너무 폼나게 미국 편을 들고 있다. 자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떠올라 불안하다.

어린이들이 싸울 때 처음부터 크게 싸우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한쪽이 주먹으로 때릴 흉내를 내면 상대방도 주먹을 든다. 이 경우 대부분은 진짜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제스처이다. 다시 한쪽이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큰 싸움으로 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제 타격론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닐 것이지만 그런 언행을 자주 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양상시켜 놓고 가는 것 같아 큰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P)에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로 일본·호주·인도 등이 참여하는 콰드(QUAD)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것과 연결하여 보면 그의 외교 행위는 분명 미·중 균형 외교가 아니라 미국 편중 외교의 성격을 띤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한미일 삼국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말려드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방력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력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한국 전체 수출 액수(2021년 기준 6445억 달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흑사라도 미국은 정치 군사 동맹국, 중국은 경제 동맹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곤란하다.

국내 정치는 앞으로 잘하면 얼마든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 문제는 한번 엉켜지면 임기 내내 만화가 어려울 수 있다. 외교적 실수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끌어내기 바란다.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고

주택관리사들의 '1004 헌혈 릴레이 챌린지'



김희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부회장

50대 중반에 들어서, 헌혈을 다시 시작했다. 그 보람과 뿌듯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더 나아가 필자가 소속돼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주택관리사들의 직무 교육장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택관리사 1004명 헌혈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헌혈!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뽑아주는 일'이다. 그러나 잘 아는 것 같은 이 헌혈에 대해, 우리는 의외로 잘 모른다. 헌혈은 흔히 이렇게 설명되기도 한다. 혈액 성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

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 바로 헌혈이다. 왜 헌혈이 고귀한 행동일까?

최근에 영화 '모비우스'를 봤다. SF 마블 히어로 영화이다. 모비우스 박사는 태어날 때부터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어 결국 인공 혈액을 개발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혈액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재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로 있는 한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인공 혈액을 만들어질 때쯤이면 인류는 새로운 종의 진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도 혹은 앞으로도 인간 몸속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낼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 누구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혈액을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혈액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뽑는다. 그것이 헌혈이다. 단단컨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헌혈은 고귀하다.

조사에 의하면, 연간 300만 명이 헌혈에 참여해야만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헌혈한 혈액은 사실상 장기간 보관이 힘들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헌혈자의 지속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3년 가까이 코로나19의 험난한 시간을 겪었다. 이 시기 헌혈자는 크게 줄었고, 혈액 보유량은 극도로 부족했다.

이런 와중에 주택관리사의 헌혈 캠페인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직무 교육에서 참석자 가운데 열 명 중 한 명이 헌혈했다. 지금까지 직무 교육장에서의 헌혈 봉사자는 64명에 이른다. 봉사 위원들도 함께 호뜻해했다. 필자를 비롯한 주택관리사들의 헌혈 캠페인은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져 공동체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놀라운 것은 직무 교육장에서의 헌혈 뿐 아니라 일상에서 1004명 주택관리사의 헌혈 릴레이 챌린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주택관리사 가족들도 동참하고 있다. 헌혈하고 찍은 인증샷은 자랑과 보람의 장면이자 활력을 주는 에너지이자(energizer)가 되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 것이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몸속 곳곳에 혈액을 보낸다. 그 심장의 모양이 '하트'이다. 그래서 헌혈은 '사랑'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 헌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社說

광주시, 복합쇼핑몰에 밀린 지역 현안 쟁겨야

민선 8기 출범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이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이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이 뒤전으로 밀리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국민의힘과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국가 지원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트램·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6000억 원,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 유통센터 3000억 원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데 국민의힘은 "복합쇼핑몰은 민간 영역"이라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광주시가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예시(例示) 차원에서 국가 지원부터 들이밀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에도 민간에만 떠넘기는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광주시의 전략 부재가 더 커 보인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광주시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3~5년 이상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광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민선 7기 탓만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설 정도다. 해묵은 난제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무등산 주변 난개발을 막으려고 직접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의 활용이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도 답보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이던, 전방·일선방직 부지 개발, 백운 지하차로 등 지역 현안들을 '밀린 속제'라고 규정하며 취임 6개월 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안 해결 방안을 빠르게 도출해 임기 내 사업을 매조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복합쇼핑몰에 매몰될 게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안들을 신속히 풀어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확진자 폭증에도 접종 기피, 유인책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1536명으로, 6월 평균 확진자 수(171명)에 비해 아홉 배 가까이 급증했다. 확진됐던 시민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을 또한 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체 확진자의 1%(280명)이 재감염이었다. 이달 들어서는 4.9%(918명)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그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전남이 2100명,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에 육박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전파력 강한 BA.5 바이러스 확산과 거리 두기 해체에 따른 유행 증가 증가, 여름철 실내 활동과 재감염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파르게 재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4차 접종을 꺼리고 있다. 광주시민들의 4차 백신 접종률은 그제 기준 11.6%(16만 6944명)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이 4차 백

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는 3차 백신까지 맞고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가을 출시 예정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다.

우리는 3번째 코로나19와 씨름하며 개인별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위증증 환자 수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4차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학 방역'을 내세운 만큼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해소할 정보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희망자 열 명 이상이 모집되면 접종팀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종하는 광주시 동구의 '방문 접종팀'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無等鼓

1980년대 일본은 거칠 것이 없었다. 경제대국으로 돈이 넘쳐나 국민들은 '깃발 부대'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지를 점령했고 기업들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구촌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요즘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

다. 다른 나라는 꾸준히 불가가 올랐지만 일본은 오르지 않나 보니 어느새 산 나라가 돼 버렸다.

빅맥 가격은 일본이 세계 33위(390엔)로 25위인 태국(440엔)보다 싸고 아이폰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싸다.

그렇다고 구매력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인화 가치가 폭락해 일반 국민들은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은 부유층의 특권이 됐고 일반인들은 1960~70년대처럼 신흥여행으로 가고시마나 도쿄 근처 온천가인 아타미를 가게 됐다는 자조섞인 소리가 나온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

바사대학 명예교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조만간 한국에 역전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달러당 139엔일 때 일본은 3만 2010달러로 한국(3만 1902달러)보다 조금 높지만 달러당 140엔이 되면 한국에 뒤진다는 것이다. 10년 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두 배였다. 2010년 기준 일본의 100으로 본 현재 일본의 실질 구매력은 61.7로 1971년과 같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임금은 일본이 3만 1714달러로 한국(3만 2316달러)에 이미 뒤졌다.

가난해진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 저격 피살 사건을 보면서 아젠 '안전한 나라'도 아니라며

침울한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아베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우 사저 앞 소주병 투척 사건 당시 경호원들의 발 빠른 대처와 비교하며 개탄하고 있다.

일본 특파원을 지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1993년 '일본은 없다'란 책을 통해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러 가지로 일본을 닮아가는 우리 입장에서선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제점을 미리 점검할 시기다.

/정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주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